



NXP,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RTOS로 인텔리전트 디바이스와 안전한 '엣지-투-클라우드' 개발 간소화

*NXP의 엣지 프로세싱 솔루션 전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RTOS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 확대*

2020년 4월 3일 – NXP 반도체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Microsoft Azure) RTOS(실시간 운영체제)를 자사의 엣지버스(EdgeVerse) 포트폴리오 프로세싱 솔루션에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협력으로 MCUXpresso 소프트웨어 및 툴을 사용하는 NXP 개발자 커뮤니티는 파일 관리를 위한 완전 통합형 미들웨어 및 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보안, 네트워킹, 유무선 커넥티비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애저 RTOS 기능을 끊임 없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NXP의 저전력 보안 32 비트 LPC 및 i.MX RT 크로스오버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상당수에서 애저 RTOS가 지원되고 있다. 이번 발표로 NXP는 MS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자사의 인기 있는 MCU Xpresso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에서 애저 RTOS를 구현하고자 한다. 추후 NXP의 MCU 포트폴리오 전반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턴키 방식의 통합으로 적절한 프로세서 선정, 안전한 인텔리전트 엣지 디바이스 개발 및 배포, 보안 LAN(local area network) 구축, 클라우드로의 연결 등 개발 주기의 거의 모든 과정이 단순화된다.

NXP와 MS는 이번 협업으로 개발자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신규 산업용 및 IoT 엣지 애플리케이션 시장 출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샘 조지(Sam George), MS의 애저 IoT 사업부 부사장은 “MCUXpresso SDK 고객들에게 애저 RTOS를 제공하기 위해 MCU 선두 공급업체이자 크로스오버 MCU 부분 선도기업인 NXP와 협업을 확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협업의 결과로 개발자들은 끊임 없이 매끄럽게 애저 클라우드에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혁신적인 신규 인텔리전트 엣지 솔루션을 신속히 구축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유(Joe Yu), NXP의 MCU 사업 부사장은 “엣지 프로세싱이 급속히 도입되면서 MCU 운영 체제 환경이 바뀌었다. 오늘날의 산업용 및 IoT 엣지에는 포괄적인 미들웨어 스택과 결합된 작은 풋프린트 RTOS에 기반을 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애저 RTOS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 NXP는 고객들이 인텔리전트 엣지와 안전하게 연결된 세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저 RTOS로 본사 MCU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나스닥: NXPI)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여, 안전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만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 및 IoT, 모바일, 통신 인프라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30,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9년 매출은 미화88억 8천만불이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